
일부 대학생의 건강신념과 B형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와와의 관련성

김미정*, 박 종**

The Association between health beliefs and receiving hepatitis B Vaccinations among college students

Mee-Jung Kim*, Jong Park**

요 약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신념모형을 이용하여 일부 대학생의 B형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와 건강상태인식, 건강관련행위, 건강신념에 따른 B형간염 예방접종 이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와 관련된 요인은 대학생에 있어서 B형간염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이행의도는 B형간염에 대한 감수성, 심각성을 높게 인지한 군에서 장애성을 낮게 인지한 군에서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간염 예방접종을 이행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B형간염예방에 대한 심각성과 유익함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함께 통합적인 보건교육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 B형간염 예방접종, 건강신념, 대학생, 이행의도

Abstract This study used the health belief model of college students to investigate the not with regards to their health status awareness, health management, and their health belief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a significantly high odds ratio between intent of hepatitis B vaccination and gender, The trend for receiving a hepatitis B vaccination was highest in groups with awareness of the high susceptibility and seriousness of hepatitis B, groups with awareness of the low barrier, and women as opposed to men. Therefore future research is needed regarding appropriate promotions of the seriousness and benefits of hepatitis B vaccination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a integrated health education mediation program and effect evaluation.

Key Words : hepatitis B vaccination, health beliefs, college students, receiving hepatitis

1. 서론

B형 간염은 급성 또는 만성으로 간의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세계인구의 약 30%가 감염된 적이 있고 현재 약 3억 5천만명의 환자가 만성 B형 간염을 앓고 있다[1]. 이에 대한 국가적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질병이나 면역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전염성 병원체의 전파를 막는 예방적 건강행위로서 B형 간염예방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그 사람의 질

병 및 신체적 · 정신적 건강에 대한 신념과 태도이다[2]. 이처럼 사람들의 건강행위 실행을 돕기 위해서 먼저 건강에 대한 태도 신념 즉 건강신념을 변화시켜 스스로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Goins 등[3]의 연구는 백일해 백신접종에 대한 의사나 주변 동료들의 권고, 본인, 자신의 환자 및 가족에게 전파시킬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실제 접종과 접종의도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Blue 등[4]은 건강한 성인의 인플루엔자백신 접종 의 예측인자를 분석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 장애성이 유의한 예측인자로 보았다. Siddall[5],

*광주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학교실(교신저자)

논문접수: 2012년 5월 8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5월 16일

Hisley[6]의 건강행위 또는 환자역할행위 연구, Nancy 등[7]의 대장암검진연구, Theresa 등[8]의 자궁암검진연구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심각성과 장애성, 유익성이 건강행위와 관련 있다고 보고하였다. B형간염 건강보급자와 건강인에서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이덕희[9]연구에서 건강인 집단은 건강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감수성이 간염 보급자 집단은 지각된 장애성과 건강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주었다. 간염과 관련된 예방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임숙희[10]의 연구는 간염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도, 지식, 감수성, 예방행위의 유익성이 유의한 변수들로 나타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B형 간염 예방접종이행과 건강신념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최 춘 등 [11]연구에서는 지각된 감수성, 지각된 심각성이 유의한 변수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가장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고 감염성 질병에 대한 지식과 예방적 대처가 미흡한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현재 신체적 불편감이 없으면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나 이 시기의 건강생활의 습관화와 건강신념은 성인기와 노년기 건강습관의 형성과 건강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B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과경로의 차단, 간염 예방백신의 접종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건강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및 보건학적 특성들과 B형 간염에 대한 인식 및 예방접종 이행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간염에 대한 지식, 간염에 대해 지각된 감수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 자기효능감 등이 B형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대학생들에 대한 B형간염 예방 보건교육계획의 의미 있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광역시 소재한 2.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질문내용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부 수거 하였다. 총 응답자는 228명

이었는데 그 중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한 학생 35부를 제외한 193부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설문지의 구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관련 행위 16문항, 건강에 대한 개념 12문항, 자기효능감에 대한 17문항, 지각된 유익성 6문항, 지각된 심각성 9문항, 지각된 장애감 10문항, 지각된 감수성, 간염에 대한 지식 14문항으로 총 8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1 B형 간염 예방접종 여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B형간염 예방접종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시거나 회수는 구분하지 않고 접종 이행여부만을 조사하였다.

2.2.2 일반적 특성 및 건강관련 행위

일반적인 특성으로 연령, 성별, 전공학과, 학년을 조사하고 건강관련행위는 흡연유무, 음주여부, 규칙적 운동여부를 조사하였다.

2.2.3 건강관련요인 및 행동계기 요인

건강관련요인에서는 건강인식, 과거 B형간염 유무, 가족 친구 중 B형간염 유무를 조사하였으며, 행동계기는 B형 간염에 대한 의사의 충고, 신문 또는 잡지, 텔레비전 등의 방송 매체의 중재에 대한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2.2.4 건강 개념

건강개념척도(health conception scal)는 송금숙[12]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반응하도록 하였다. Cronbach's $\alpha = .840$ 이었다.

2.2.5 건강신념

건강행위가 일어나기 전의 마음상태로서 자신이 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신념과 질병 발생시 자신의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이라는 신념, 특정질병에 대한 예방책을 이행하는 경우 그 예방책의 효과와 예방책의 수행에 따르는 장애 등에 관하여 인지하는 내용[13]을 뜻한다. Becker[14]의 건강신념 모델을 토대로 하여 문정순[15]이 개발한 성인의 건강신념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2.5.1 지각된 감수성(perceived susceptibility)

B형간염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아주 많다’부터 ‘전혀 없다’까지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수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 .589이었다.

2.2.5.2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riousness)

B형 간염이 심리적, 신체적, 가정생활, 학교나 사회활동에 영향을 가져오리라 믿는 것으로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 .888이었다.

2.2.5.3 지각된 유익성(perceived benefit)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음으로써 간염의 예방, 치료의 악화방지, 간염의 이환에 대한 두려움 감소의 효과 등을 포함한 자신에게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이득이라 보고 6문항을 측정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익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 .843이었다.

2.2.5.4 지각된 장애감(perceived barrier)

B형 간염 예방접종 관련 행위가 고통스럽고 시간, 노력, 비용이 많이 든다고 믿는 것으로 10문항을 측정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 .841이었다.

2.2.5.5 B형간염에 대한 지식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으며 현재 질병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발견하려는 행위를 의미하며 1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1점씩 배점하여 총합으로 지식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2.2.5.6 자기 효능감

예방적 건강행위에 적용하고 이를 완수하는 능력에 관한 지각을 조사하기 위하여 Rosenstock[13]에 의한 자기 효능감의 확실성을 1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각 문항의 점수의 합을 문항수로 나

눈 평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 .9158이었다.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예방 접종을 위한 행동계기요인, 건강신념 모형의 구성요인과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와의 관련성은 t-test와 χ^2 -test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그리고 단순 분석에서 경계역 수준 이상의 관련성을 보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과 관련된 최종변수를 규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 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성별(p=0.04), 학년(p=0.15)이었다. 성별에서는 여자의 B형간염 예방접종이행의도가 있는 경우가 69.6%로 남자의 48.1%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B형간염예방접종을 하겠다는 의도가 78.8%로 2학년 65.5%, 1학년 52.0%보다 높아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B형간염예방접종 이행의도

단위: 명(%)

특성	구분	B형간염예방접종		P
		안함(%)	함(%)	
연령(세)	19세	29(43.3)	38(56.7)	.372
	20세	17(36.2)	30(63.8)	
	21세	6(25.0)	18(75.0)	
	22세	24(43.6)	31(56.4)	
성별	남자	42(51.9)	39(48.1)	.004
	여자	34(30.4)	78(69.6)	
전공학과	보건계열	58(36.9)	99(63.1)	.209
	비보건계열	18(50.0)	18(50.0)	
학년	1학년	49(48.0)	53(52.0)	.015
	2학년	20(34.5)	38(65.5)	
	3학년	7(21.2)	26(78.8)	

3.2 건강상태와 가족력에 따른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

건강상태와 가족력에 따른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와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표 2).

〈표 2〉 건강상태와 가족력에 따른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
단위: 명(%)

변수	구분	B형간염 예방접종		p
		안함	함	
현재 건강상태	건강	45(37.5)	75(62.5)	.512
	불건강	20(37.7)	33(62.3)	
가족, 친구의 B형간염 유무	있음	68(39.5)	104(60.5)	1.000
	없음	8(38.1)	13(61.9)	

3.3 건강관련행위에 따른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

건강관련행위에 따른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는 흡연여부(p=.002)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비흡연자의 경우에서 B형간염예방접종을 하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9.4%로 과거흡연자 60.0%, 현재흡연자 42.4%에 비해 높았다(표3).

3.4 행동계기요인에 따른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

B형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는 행동계기 요인 중 가족 또는 친구, 친척의 조언만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0). 즉 가족, 친구, 친척의 조언이 없었던 경우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응답율은 73.5%로 있었던 경우 56.3%에 비해 높게 나왔다. 그러나 신문, 잡지, 의사의 충고, TV나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는 차이가 없었다(표 4).

〈표 3〉 건강관련행위에 따른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
단위: 명(%)

특성	구분	B형간염 예방접종		p
		안함	함	
흡연상태	현재흡연	34(57.6)	25(42.4)	.002
	비흡연	38(30.6)	86(69.4)	
	과거흡연	4(40.0)	6(60.0)	
음주상태	현재음주	50(41.7)	70(58.3)	.468
	비음주	21(33.9)	41(66.1)	
	과거음주	5(50.0)	5(50.0)	
규칙적 운동여부	안함	43(34.4)	82(65.6)	.098
	함	32(47.8)	35(52.2)	

〈표 4〉 예방접종을 위한 행동계기요인과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

단위: 명(%)

변수	구분	B형간염 예방접종		p
		안함	함	
신문, 잡지	(+)	53(42.1)	73(57.9)	.372
	(-)	23(34.3)	44(65.7)	
의사충고	(+)	71(42.0)	98(58.0)	.078
	(-)	5(20.8)	19(79.2)	
TV, 라디오 정보	(+)	48(39.0)	75(61.0)	1.00
	(-)	28(40.0)	42(60.0)	
인터넷	(+)	67(40.1)	100(59.9)	.750
	(-)	9(34.6)	17(65.4)	
가족, 친구 친척의 조언	(+)	63(43.8)	81(56.3)	.050
	(-)	13(26.5)	36(73.5)	

3.5 건강신념관련 요인에 따른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는 인지된 심각성(t=-3.680, =.000)으로 B형간염 비의도군 27.5점 보다 의도군이 30.2점으로 더 높게 나왔으며, 인지된 유익성은(t=-4.159, p=.000)은 비의도군 19.8 점 보다 의도군이 21.9점으로 더 높게 나왔다. 인지된 장애성(t=-3.520, p=.000)은 비의도군이 26.0점으로 의도군 23.3점보다 더 높게 나왔으며, 감수성(t=-3.243, p=.001)은 비의도군이 8.1점으로 의도군 9.1점으로 더 낮게 나왔다. 그러나 건강의식, 간염지식, 자기효능감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5).

〈표 5〉 건강신념관련 요인에 따른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

변수	B형간염 예방접종		t	p
	안함(M±SD)	함(M±SD)		
건강의식	35.5±5.2	36.6±4.3	-1.559	.121
간염지식	10.4±1.8	10.7±1.7	-.962	.337
심각성	27.5±4.4	30.2±5.9	-3.680	.000
자기효능감	50.0±7.0	50.5±6.8	-.442	.659
유익성	19.8±2.9	21.9±3.6	-4.159	.000
장애감	25.9±4.6	23.3±5.5	3.520	.000
감수성	8.1±2.1	9.1±2.2	-3.243	.001

3.6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와 관련된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와 관련된 요인을 보면 B형 간염에 대한 성별의 교차비는 2.13(95% 신뢰구간 1.11~4.08), 심각성(OR=1.10, 95% 신뢰구간 1.03~1.17), 감수성(OR=1.23, 95% 신뢰구간

간 1.05~1.45)이 유의하게 높은 교차비를 보였고 질병에 대한 장애성(OR=0.88, 95% 신뢰구간 0.82~0.95)은 유의하게 교차비가 낮았다. 그러나 단순분석상에 유의한 관련을 보였던 B형간염 예방접종의 학년, 흡연여부, 유익성의 경우 교차비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표 6).

〈표 6〉 대상자의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여부에 관련된 요인

변 수	OR (95%CI)
성별	2.13(1.11~4.08)
심각성	1.10(1.03~1.17)
장애성	0.88(0.82~ 0.95)
감수성	1.23(1.05~1.45)

4. 고찰

B형간염표면항원의 양성률이 0.3%인 선진국에 비해 약 8%로 상대적으로 높은 B형 간염 유행율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B형 간염에 대한 예방은 보건교육, 전과경로의 차단, B형 간염의 검사 및 간염 예방백신의 접종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1]. 따라서 B형 간염 예방대책을 수립함에는 예방백신의 접종 등과 같은 예방적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 경제학적 및 보건학적 특성과 B형 간염에 대한 인식 및 예방접종의 이행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B형 간염에 대해 인식확립과 건강행위 실천하는데 있어서 특히 활동영역이 광범위하고 건강측면에서 자기관리에 대한 준비나 사전지식이 거의 없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B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 이행의도와 건강신념과의 상호 관련성을 보기 위해 건강신념 모형을 근거로 시도되었다.

예방접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장애성을 높게 인지한 군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낮았다. Blue 등[4]의 건강한 성인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연구, 이종경[16]의 자궁암 조기검진을 중심으로 예방적 건강행동에 대한 예측요인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 이영휘 등[17]의 관상동맥 질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정숙명[18], 이영휘 등[19], Stein 등[20]의 유방촬영술 경험과 유방촬영 이행의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유방암 수검행동을 예측했을 때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건강신념

변수가 지각된 장애성이 낮을수록 자가검진 실행률이 높았다. Schroetter와 Peck[21]은 여성대상 심장병 예방을 위한 일차의료 중심 접근에서 장애성이 심장병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건강서비스 이용에서 오는 불편감, 고통, 새로운 행동변화의 필요성은 부정적인 측면 즉 장애성이 낮을수록 B형간염 예방접종 이행에 대한 준비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익성은 건강예방을 위한 행위가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건강행위의 효율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조희숙 등[22]의 건강신념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인 건강관련 행동연구, 이병숙[23]의 대학생의 건강신념 및 건강행위 실천도에서 지각된 유익성이 유의한 예측인자로 보였다. 김미경[24], Helmes[25], Tolma[26]의 유방암 자가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유방암 자가검진 이행자가 비이행자보다 지각된 유익성이 높을수록 유방암 자가검진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최유선과 정혜선[27]은 임상간호사의 손 씻기 수행관련 요인분석에서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은 손 씻기 수행도에서 유의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지각된 유익성이 장애성 보다 더 클 경우 건강행위를 높이며 동시에 바람직한 건강행위가 일어나는데 본 연구에서 지각된 유익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감수성과 심각성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개인적인 주관으로 질병예방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건강행위가 달라진다. 즉 각 개인이 지각된 민감성과 심각성이 높으면 질병에 대한 생각을 특정한 건강행위인 예방하는 건강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김은희[28]의 간염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분석 연구, 최 춘 등[11]의 노인을 대상으로 B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 이행에 관한 연구, 이덕희[9]의 B형간염 건강보급자와 건강인의 예방적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임숙희[10]의 간염과 관련된 예방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Champion & Miller[29]의 유방촬영 권고안에 따른 참여정도를 조사 연구, Haefner & Kirscht[30]의 암, 심장질환, 결핵 등의 예방을 위한 건강행위 연구 Kegel[31]의 예방적 치과 방문, 김장락 등[32]의 고혈압의 심각성에 따른 순응도 차이, Chapman & Coups[33]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대한 예측인자를 분석 연구, 김진학[34]의 고혈압 환자들의 투약관련요인 및 건강신념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 등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지금까지 예방

접종 이행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로 볼 때 예방적 건강 행위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보고된 변수들은 해당 질환에 대해 개인적 감수성을 믿는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지하는 경우, 행위를 취하는데 있어 유익성이 높고 장애성이 낮다고 인지할 때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B형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는 B형간염에 대한 감수성, 심각성을 높게 인지한 군에서 장애성을 낮게 인지한 군에서 예방접종 이행의도가 높았고 지각된 유익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신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 춘등[11]의 연구에서 T.V 또는 라디오 중재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친구가 간염이 있는 경우 교차비가 높게 나왔다. 손재희 등[35]의 연구에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심각성과 금연으로 인한 유익성이 금연 프로그램 참가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 성별에서만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자보다 여자가 더 건강신념이 높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짐으로 예방접종 이행의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한 도시지역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대학생에게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단면적 자료 수집에 의한 분석이므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지역사회 대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보다 대규모적인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B형 간염 예방접종과 관련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형을 이용하여 일부 대학생의 B형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와 건강상태 인식, 건강관련 행위, 건강신념에 따른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광주 지역 일부 대학생 193명을 대상으로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B형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와 관련된 것은 성별($p=0.04$)과 학년($p=0.15$), 흡연여부 ($p=.002$), 행동계기 요인 중 가족 또는 친구, 친척의 조언이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0$).
2. 건강신념모형 변수와 B형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와 의 관계에서 인지된 심각성($t=-3.680, =.000$), 유익성($t=-4.159, p=.000$). 장애성($t=-3.520, p=.000$), 감수성($t=-3.243, p=.001$)이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와 관련된 요인을 보면 성별($OR=2.13, 95\%$ 신뢰구간 $1.11\sim 4.08$), 심각성($OR=1.10, 95\%$ 신뢰구간 $1.03\sim 1.17$), 감수성($OR=1.23, 95\%$ 신뢰구간 $1.05\sim 1.45$)이 유의하게 높은 교차비를 보였고 질병에 대한 장애성($OR=0.88, 95\%$ 신뢰구간 $0.82\sim 0.95$)은 유의하게 교차비가 낮았다. 그러나 단순분석상에 유의한 관련을 보였던 B형간염 예방접종의 유익성, 학년, 흡연여부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는 대학생에 있어서 B형간염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이행의도는 B형간염에 대한 감수성, 심각성을 높게 인지한 군에서 장애성을 낮게 인지한 군에서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간염 예방접종을 이행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B형간염예방에 대한 심각성과 유익함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함께 통합적인 보건교육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및 효과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1] 보건복지가족부 (2009).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안내.
- [2] Suchman, E. A. (1970). Health Attitudes and Behaviors. *Archives of Environmental Health*, 20(1), 105-109.
- [3] Goins, W. P., Schaffner, W., Edward, K. M. & Talbot, T. R. (2007). Healthcare Workers'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Pertussis and Pertussis Vaccination. *Infection Control and Hospital Epidemiology*, 28(11), 1284-1289.
- [4] Blue, C., & Valley, J. M. (2002). Predictors of

- Influenza Vaccine Acceptance Among Healthy Adult Workers. *AAOHN Journal*, 50(5),227-233.
- [5] Siddal, L. A. (1996). Relationships of age, osteoporosis knowledge, self-efficacy, and health beliefs in adult women. Master thesis, Clarkson College, Iowa, USA.
- [6] Hisley, S. M. (1997). Osteoporosis prevention : A conceptual model. The Texas Woman's University, Texas, USA.
- [7] Nancy, K. J. (2003). Colorectal cancer screening attitudes and behavior: A population-based study. *Preventive Medicine*, 37,627-634.
- [8] Theresa, L. B. (2004). Cervical cancer screening beliefs among young Hispanic women. *Preventive Medicine*, 38, 192-197.
- [9] 이덕희 (1996). B형 간염 건강보유자와 건강인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 [10] 임숙희 (1984). 간염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예방적인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 [11] 최춘 · 박종 · 강명근 · 김기순 (2006). 일부 노인의 B형간염 예방접종 이행과 건강신념과의 관련성. *한국보건교육 · 건강증진학회지*, 23(4),89-104.
- [12] 송금숙 (1999). 일부 지방공무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그 관련요인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13] Rosenstock, I. M. (1974). Historical origins of the health belief model :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ersonal health behavior. Thorofare Newton: Charles B, Slac. Inc. 1-8.
- [14] Becker, M. H. (1974). The health belief model and sick role behavior: In M. H. Becker(Ed).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ersonal health behavior*. New Jersey: Charles B. Slack.
- [15] 문정순 (1990). 성인의 건강신념 측정도구 개발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16] 이종경 (1982).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의 예측인자 발견을 위한 연구 -자궁암 조기검진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12(1), 25-38.
- [17] 이영희 · 김화순 · 조의영 (2002). 관상동맥질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건강신념 변수를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31(1),40-49.
- [18] 정숙명 (2000). 여성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19] 이영희 · 이은현 · 신공범 · 송미숙 (2004). 국내여성 과 미국이주 한국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건강신념과 유방자가검진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34(2), 307-314.
- [20] Stein, J. A., Fox, S. A., Murata, P. J. & Morisky, D. E. (1992). Mammography usage and the health belief model. *Health Educ Q*, 19(4), 447-462.
- [21] Schroetter, S. A. & Peck, S. D. (2008). Women's risk of heart disease: promoting awareness and prevention primary care approach. *Medical Surgical Nursing*, 17(2), 107-113.
- [22] 조희숙 · 김춘배 · 이희원 · 전현재 (2004). 건강신념 모형을 적용한 한국인 건강관련 행동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9(1), 69-84.
- [23] 이병숙 (2000).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의 건강신념 및 건강행위 실천도. *대한간호학회지*, 30(1), 213-223.
- [24] 김미경 (1990). 유방암 자가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건강신념모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25] Helmes, A. W. (2002). Application of the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to genetic testing for breast cancer risk. *Preventive Medicine*, 35(5), 453-462.
- [26] Tolma, E. L., Reininger, B. M., Ureda, J. & Evans, A. (2003). Cognitive motivations associated with screening mammography in Cyprus. *Preventive Medicine*, 36, 363-373.
- [27] 최유정 · 정혜선 (2004).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한 임상간호사의 손씻기 수행관련 요인 분석. *임상간호연구*. 9(2), 32-41.
- [28] 김은희 (1984).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29] Champion V. & Miller, A. M. (1996). Recent mammography in women aged 35 and older: predisposing variables. *Health Care Women Int*, 17(3), .233-245.
- [30] Haefner, D. P. & Kirscht, J. P. (1970). Motivational and behavioral effects of modifying health beliefs. *Public Health Reports*, 85, 478-484.
- [31] Kegeles, S. S. (1963). Some motives for seeking preventive dental card. *Journal of the American*

Dental Association, 67, 90-98.

- [32] 김장락 · 문중갑 · 강경희 · 이명순 · 홍대용 (1997). 고혈압의 치료순응과 그 관련요인에 대한 지역사회 추적조사. 대한보건협회지, 23(1), 79-100.
- [33] Chapman G. B. & Coups, E. J. (1999). Predictors of Influenza Vaccine Acceptance among Healthy Adults. Preventive Medicine, 29, 249-262.
- [34] 김진학 (1998). 고혈압 환자의 투약관련 요인 및 건강신념과 이행간의 관계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35] 손재희 · 김성아 · 감 신 · 예민혜 · 박기수 · 오희숙 (1999). 근로자의 금연 프로그램 참가의도와 관련된 요인. 예방의학회지, 32(3), 297-305.

김 미 정(Mee-Jung Kim)



- 2012년 현재 조선대학교 대학원보건의학과박사수료
- 2012년 현재 광주보건대학 보건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보건, 의료

박 중(Jong Park)



- 1999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의학박사)
- 2010년 현재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관심분야 보건, 의료